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7.(목) 조간 (온라인 12. 6. 14:00)	대변인실	044-203-6588
배포일시	2017. 12. 6.(수)		
담당부서	교육부	담당과장	과장 송근현, 사무관 임효진(044-203-68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과장 임요업, 사무관 한우진(02-2110-2480)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

- 18년, 5개 대학을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
- 대학생, 교원과의 소통을 통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방안 논의

- 정부 R&D 투자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논문 등의 연구성과 기반의 대학(원)생·교원 창업(“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기술과 사람을 실험실 창업에 부합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기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창업에 필요한 기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TRL 3~4 → 8~9) △기술완성도 평가, △기술 검증, △연구실 프로토타입 개발 등 후속 R&D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자는 실험실 창업의 핵심인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업무(시장분석, R&D 포트폴리오, 투자유치 등)를 전담할 인력(이노베이터, Innovator)도 지원받는다.

- (사람) 실험실 소속의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경우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학생 창업수당을 지급하고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졸업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 창업 및 전공 융합 교육과정 운영, 창업으로 논문 대체하여 석사학위 수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이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7. 12. 6(수)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2017 실험실 일자리 대학생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화형 창업선도대학('18년 5개)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중기부가 선정·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40개) 중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대학은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창업지원 의지가 강한 실험실(Lab)을 선정(3~10개 내외)하고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ICT 이외에 바이오, 나노 등 분야에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 방식 등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출연(연)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Lab to Market)을 의미하며,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다.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평균 고용규모도 3배가량 높으며(9.5명), 창업 5년 생존율(80%) 또한 일반 기업(27%)에 비하여 우수하다.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일루미나(iLLumina)社를 들 수 있다. 일루미나는 유전자분석 및 DNA 시퀀싱 관련 바이오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미국 터프스(Tufts)대학 교원이 실험실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1998년 설립된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25조원에 이르며, 현재 약 5,500명을 고용한 큰 회사로 성장하였다.

<실험실 일자리 창출 해외 사례>

Palantir Technologies (미국) 2004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 · CIA, FBI, NSA, 미 군사조직 등에서 해당 솔루션 사용 ·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창업 · 현재 기업가치 약 24조 원 / 약 2000개 일자리 창출 	
Mobileye (이스라엘) 1999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용 자동차(센서 및 카메라) 핵심기술 보유 · 히브리대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 · Intel이 17조 원에 인수('17) / 약 750개 일자리 창출 	
iLLumina (미국) 1998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분석 및 DNA시퀀싱 관련 생명공학기술 보유 회사 · 터프스(Tufts)대학 교수가 VC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 · 현재 기업가치 약 25조 원 / 약 5,500개 일자리 창출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 되어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우 졸업생이 창업한 4만개의 기업이 총 5백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약 2.7조 달러)가 프랑스 GDP 수준에 이른다. MIT대학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495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중 21개는 창업으로 이어진다. MIT대학이 소재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MIT 출신 창업기업으로부터 나왔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이라 불리는 A대학의 경우에도 창업팀 중 실험실 창업 비율이 2.3%에 불과하며, 실험실 창업이 전혀 없는 대학이 전체대학의 약80%에 이른다.

<미 스탠포드 대학교 vs. 국내 A 대학교>

미 스탠포드 대학교	국내 A 대학교
학생수/교원수 16,336명/2,180명	학생수/교원수 28,630명/5,315명
졸업생수 140,000명	졸업생수 120,000명
창업기업 4만개	창업기업 1250개
신규 일자리 5백만개	신규 일자리 10만개
경제적 부가가치 2.7조 달러 <small>우리나라 GDP(1.2조달러) 2배 프랑스 GDP 수준</small>	경제적 부가가치 377억 달러
연구비 규모 10억 달러	연구비 규모 5억 달러

- 실험실 창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이공계 대학원생의 창업의향 또한 다른 대학 구성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분류별 창업의향 조사>

내용	전체	이공계대학원	이공계 학부	비이공계대학원	비이공계학부
창업 의향자	17.4%	8.1%	22.2%	11.7%	19.8%
창업 비의향자	82.6%	91.9%	77.8%	88.3%	80.2%

※ 청년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 실태조사(청년위원회, '16)

- 실험실 창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대학생, 교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사를 준비한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이디어 창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험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 “내년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정부 내에 바이오·나노 등 첨단분야 실험실 창업 성공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컨셉>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창업선도대학, 창업중심대학 등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의 학생, 교원, 창업지원 행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창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리>

구분	주요 의견 및 정책 제안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 창업을 위한 후속 R&D 과제 예산 지원 부족 ○ 창업을 위한 겸직승인 절차가 까다로움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과 연구, 학업을 병행하려면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학생창업/교수창업/대학원생 등 대상별 맞춤형 창업지원 필요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작업이 과도하여 정작 본사업에는 집중이 어려움 ○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창업지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SBIR, STTR) 등과 같이 장기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 지원금을 창업자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집행 유연성 제고 필요 ○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사업아이템에 대한 투자개념의 지원 및 제도 활성화

- 패널로 나선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은 “대학, 산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창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전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내 초기 창업팀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임효진 사무관(☎044-203-68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우진 사무관(☎ 02-2110-2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목적)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 등
- (일시/장소) '17.12.6.(수), 14:00~16:30/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6층)
- (참석자) 과기정통부, 교육부 관계자, 대학 교원·대학원생, 창업 관계자 등 150명 내외
- (주요내용)
 - (1부) 기조발표, 사례발표(대학생 창업지원사례, 대학생 창업사례) 이후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정책제안 및 질의응답) 진행
 - ▶ (기조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험실 창업”(과기부 1차관)
 - ▶ (사례발표) 연구성과기반 대학생 창업지원지원 해외사례(DGIST), 대학 실험실 창업 사례(학생창업자)
 - ▶ (토크콘서트) 사전 수렴된 대학생 창업활성화 관련 의견(정책제안, 질의 등)에 대하여 정부관계자(또는 전문가)에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 (2부)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추진방향 발표

□ 세부 행사일정(안)

일 정	세부 계획	비 고
1부 실험실 일자리 대학생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		
14:00~ 15:30	【기조발표】 ▶ (과기부) 제1차관	
	【사례발표】 ▶ 실험실 창업지원 사례/실험실 창업 사례	
	【대학 실험실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	
	▶ 교원,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직원 등 대학 창업 관련 관계자 및 청중의 정책제안·질의응답	
2부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추진방향 발표		
15:40~16:30	▶ 추진방향 발표 및 질의응답	